

갈대

천상병

환한 달빛 속에서
갈대와 나는
나란히 소리 없이 서 있었다.

불어오는 바람 속에서
안타까움을 달래며
서로 애터지게 바라보았다.

환한 달빛 속에서
갈대와 나는
눈물로 젖어 있었다.

무명

천상병

뭐라고
말할 수 없이
저녁놀이 저가는 것이었다.

그 시간과 밤을 보면서
나는 그때
내일을 생각하고 있었다.

봄도 가고
어제도 오늘 이 순간도
빨가니 타서 아, 스러지는 놀빔.

저기 저 하늘을 깎아서
하루빨리 내가
나의 무명을 적어야 할 까닭을,

나는 알려고 한다.
나는 알려고 한다.

눈

천상병

고요한데 앞사귀가 날아와서
네 가슴에 떨어져 간다

떨어진 자리는
오목하게 파인

그 순간 앓 할 사이도 없이
네 목숨을 내보내게 한
상처 바로 옆이다

거기서 앞사귀는
지금 일심으로
네 목숨을 들여다보며 너를 본다

자꾸 바람이 불어오고
또 불어오는데
꼼짝 않고 상처를 지키는 앞사귀

그 앞사귀는 눈이다 눈이다
맑은 하늘의 눈 우리들의 눈 분노의
너를 부르는 어머니의 눈물어린 눈이다

푸른 것만이 아니다

천상병

저기 저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
자꾸 보고 또 보고 보는데
푸른 것만이 아니다.

외로움에 가슴 조일 때
하염없이 잎이 떨어져 오고
들에 나가 팔을 벌리면
보일듯이 안 보일듯이 흐르는
한 떨기 구름

3월 4월 그리고 5월의 신록
어디서 와서 달은 뜨는가
별은 밤마다 나를 보던가.

저기 저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
자꾸 보고 또 보고 보는데
푸른 것만이 아니다.

희망

천상병

내일의 정상을 쳐다보며
목을 뺏고 손을 들어
오늘 햇살을 간다.

한 시간이 아깝고 귀중하다.
일거리는 쌓여 있고
그러나 보라 내일의 빛이
창이 앞으로 열렸다.
그 창 그 앞 그 하늘!
다만 전진이 있을 따름!

하늘 위 구름송이 같은 희망이여!
나는 동서남북 사방을 이끌고
발걸음도 가벼이 내일로 간다.